

# 수발아 피해 전남 내년 우량범씨 공급 차질 우려

### 국립종자원 4800t 공급 계약 ... 2000t 피해 발생

### 새일미·신동진 등 4개 품종 집중 ... 물량확보 비상

### 이개호 의원 현황 자료

올해 기상이변에 따른 벼 '수발아'(穗發芽, 수확 전 이삭에서 싹트는 현상) 피해로 전남지역의 내년도 우량 범씨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서 운영하는 벼 재종포(벼 씨받이밭) 단지 역시 수발아 피해를 입으면서 우량 범씨 생산량이 수매계획량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

성) 의원이 25일 국립종자원에서부터 제출 받은 '내년도 전국 벼 보급종 공급 계획량 현황자료'를 보면 전남지역 벼 보급종 공급계획량은 모두 4730t(8개 품종)이다.

품종별로는 새누리(1840t)·새일미(735t)·신동진(634t)·일미(487t)·황금누리(400t)·동진찰(300t)·미품(184t)·운광(150t) 등이다. 하지만 벼 재종포 단지 역시 벼 '수발아' 피해를 입으면서 내년도 도내 각 농가에 보급되는 우량 범씨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립종자원은 전남지역 벼 재종포 단지 '수발아' 발생 면적이 전체 800ha 중 43.

3%인 346ha(피해농가 225농가)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피해물량은 1965t으로, 이는 국립종자원이 올해 계획한 수매량 4341t의 45.3%에 달한다. 국립종자원이 예초 계획한 공급 물량에 비해 절반 가까이 부족한 셈이다.

특히 이번엔 재종포 단지에서 피해를 입은 품종은 새일미·일미·황금누리·신동진 등 4개 품종인데, 이들 품종은 다른 품종에 비해 물량공급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해마다 함평·영광·장성 등 3개 지역 재종포 단지에서 생산된 범씨를 대상으로 피해립(금이 간 쌀)·발아율 등 각종 시험과정을 거쳐 우량 범씨를 골라낸 뒤 한 해 평균 4000t~4500t 가량을 도내 각 농가에 보급해왔다.

국립종자원 측은 다시·도 품종 간 수매 물량 조정을 통해 부족한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남지역과 인접한 전북(수매계획량 5233t, 피해물량 2916t)과 경남도(2651t, 203t) 등도 수발아 피해를 입으면서 공급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각 농가에 보급되는 품종 중 약 67%만 국립종자원에서 생산된 범씨를 제공할 뿐 나머지 37%는 농가가 재종범씨 등에서 보급받아 파종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피해물량 수치는 다음달 중순께나 알 수 있다. 다만 예상대로 피해물량이 산정된다면 전남도와 각 시·군과 협의해 부족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형기자 golee@kwangju.co.kr

# '달빛동맹' 광주-대구, 국비확보도 손잡다

### 기조실장, 국회의원에게 협조요청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이 2017년 국비확보에도 손을 잡았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26일 국회에서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광주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2017년 지역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김중효 기획조정실장이 조원진 예결위원, 추경호 예결위원, 김부겸 예결위원 등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을 방문해 전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등 광주지역 현안사업 40건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또 대구시는 구본근 기획조정실장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다사~왜관 광역도로건설 등 총 30건의 추가 국비 확보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양 지역 국회의원 교차방문 현안사업 설명회는 지난 8월 광주시, 대구시,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광주-대구 '예산동맹'을 통해 2017년 양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예산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도 겨울철새 대비 AI 방역 강화

### 수요일 전통시장 소독의 날

### 오리 입식농가 점검·교육

전남도는 26일 겨울철새의 국내 도래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를 맞아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7년 2월까지 매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공동방제단을 이용, 소독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에 대해서 생산자단체 협조 하에 자율적으로 오리장(양계바구니) 및 시설 등의 청소·물세척 후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금에 대해 주기적 검사를 실시해 AI 감염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전통시장에 가금을 공급하는 거래 상인을 대상으로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이날 소독요령 등 차단방역

교육도 실시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AI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6일 계열화 사업자 대상 방역 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오리농장 일제 입식·출하 시스템 적용 ▲입식 전 시군 사전 신고제 시행 ▲가축 출하 후 2주 이상의 휴지 기간 유지 등을 협의했다.

전남 오리농가와 위탁계약한 한 계열사는 오리를 일제히 입식·출하해야 하며, 입식 전에 계약농가에 대해 방역관리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시·군에 제출해 입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 출하 후에는 2주간 충분히 소독한 후 입식해야 한다. 전남도는 오는 11월까지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를 실시해 평가등급에 따라 향후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줄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민 안전 시설물 신고 작년의 2배

### 10월까지 35건 접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전남도민의 신고나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신고 및 청구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중순 현재까지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도'를 통한 도민들의 시설물 점검 청구 건수는 35건이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청구 건수(18건)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안전에 대한 도민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시설물 관리 주체들도 깊은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35건을 모두 점검, 시설물 관리자에게 해소 방안을 제시해 보수·보강하도록 조치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는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해 소유자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전남도에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점검 청구가 접수되면 전남도는 관계 공무원과 국가기술 자격을 갖춘 안전 전문가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신청자 및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해소 대책을 알려주는 재난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안전신문고 제도'도 올 들어 10월 15일 현재까지 6300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전남도는 이 가운데 4600건을 철거 또는 보수·보강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설은 점검중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안전신문고 접수 건수는 3807건이었다.

전남도는 이와 별도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 시설물 5604개소에 대해서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박정희 전 대통령 37주기 추도식

### 서울현충원·구미 생가서 열려

### 박근혜 대통령 참석 안해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37주기 추도식이 26일 국립서울현충원과 경북 구미 생가에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거행됐다.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린 추도식에는 박 전 대통령의 유가족을 포함한 추모객 수천 명이 참석했다.

비선 실세 의혹에 휩싸인 박근혜 대통령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참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개인적으로 박 전 대통령 묘역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 EG 회장 과 딸 박근영 씨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박 회장은 최근 부인 서향희 변호사와 함께 묘역을 다녀갔다고 추도식 관계자들이 전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참석했다.

추도식은 개식사,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경례, 식사, 추도사, 박 전 대통령 육성 녹음 청취, 추도가 연주 및 합창, 조총발사,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비선 실세 의혹으로 인한 현 정국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격정하는 분위기는 역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카인 박준홍 녹색개발연구원장은 기자와 만나 "박 대통령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온 힘을 다해 국가 발전에 헌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모객들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확신을 살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육성 녹음을 들으며 감회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추모객은 박 전 대통령 추도가를 부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37주기 추도식이 26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지난해 1000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400여명에 그쳤다. /연합뉴스

# 전남도 천일염 산업 구조개혁 시급하다

### 수요 감소 불구 생산량 증가로 가격 폭락

### 값싼 중국산 수입 밀물 ... 유통센터 절실

천일염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저역식품관장 등으로 국내 소금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값싼 중국산 소금 수입도 계속되고 있어 전남 천일염 산업의 구조 개혁과 함께 소비자 수요를 감안한 생산·가공·유통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천일염 가격은 kg당 160원으로, 2015년(215원), 2014년(280원) 등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특히 최근 가격은 5년 전인 2011년 550원의 4분의1 가격으로, 천일염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남도내 염전 허가면적은 3772ha로 전국(4808ha)의 78%, 업체수는 1093곳으로 전국(1180곳)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남에서 생산한 천일염은 29만3215t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 2014년 26만9383t이었다가 지난해 29만5775t, 올해는 30만t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금 수요는 급감하고 있다. 저역식이 인기를 끌고, 김장 문화가 사라지면서 소금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데다 소금 수입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값싼 중국산 소금이 대규모 소비처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금 수입은 지난 2014년 378만8193t에서 지난해 402만301t으로 25만t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국산 천일염 가격이 폭락하고, 국내 소금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남도내 염전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생산농가들이 천일염 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통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가 사업비 지원을 요청, 해양수산부는 50억원을 반영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해 무산 위기에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TAEYOUNG 21 HOSPITAL

**태영21 병원**

**인공신장센터** **오픈**

**9월 1일**

홈페이지 | www.ty21-endo.com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신장실 | 직통  
**070-4165-7573**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운암동

광천사거리 → 광주천변로 →

유스퀘어 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태영21병원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